

동질성 회복과 시장 확장, 지금이 기회

물꼬 트인 남북 출판문화 교류 저작권 문제, 곧 가동될 당국간 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서 다루

“3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림격정》을 쓴 홍명희 선생의 손자이자 남측에서 출판된 《황진이》(대훈닷컴)의 작가 홍석중 씨가 지난 3월 15일 남측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한완상, 이하 경문협) 사람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꺼낸 말이다. 《림격정》의 저작권 상속자이자 《황진이》의 저작권자로서 남측에서의 저작권관리 사업을 경문협에 위임하는 이 자리에서 홍씨는 난생 처음 ‘수표(서명)’라는 것을 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지만 이 만남은 앞으로 이뤄질 남북 출판교류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당이나 작가동맹이 아닌 북측 작가가 ‘개인’의 저작권(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수표’를 했을 뿐 아니라 남북간에 북한의 저작권 권리 보호가 처음으로 명문화된 순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저작권 거래는 퍼주기 아니라 실질적 경험

북한에서 저작권 업무를 총괄하는 내각 산하 부서 저작권사무국에서는 이로부터 6일 후인 3월 21일 “저작권자의 승인과 저작권 사무국의 공증확인서가 없는 한 남측에서의 우리 저작권에 대한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경문협을 통해 통일부에 보냈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도 “비록 남북한 당국간 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 북저작권 담당기관의 입장 표명인만큼 이를 존중하여 남북저작권 교류 절차에 반영하기로 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문협 신동호 문화협력위원장은 “2000년 6·15선언 직후 저작권리의 중요성을 북측에 전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며 “2003년 경문협 탄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저작의 저작권 문제를 재단의 공식사업에 포함시켰고 드디어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7

일 홍석중 씨와 사계절출판사 강말실 대표는 “《림격정》에 대한 지난 20년간의 저작권료로 15만 달러를 상속자인 홍석중 씨에게 지급한다”는 계약서에 서로 합의했고, 이를 계기로 북한 저작권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남북간의 저작권 계약이 하나둘 진행되고 있다. 사계절출판사는 이미 《청동항아리》(리원우 작) 《이상한 소경》(강덕우 작) 《귀가 큰 토끼》(배풍 작) 등 북한 동화 13편 출간을 앞두고 있고, 자음과모음은 북녘역사장편소설시리즈(가제) 첫 번째 권으로 최명익(1902~1972)의 《서산대사》와 북한의 대체의학을 소개하는 시리즈의 출간을 서두르고 있다.

이 외에도 현재 북한 저작권과 관련해 영화에 삽입할 노래와 출판물에 사용할 사진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는 《북한조선대백과사전》 《조선유족유물도감》 등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싶다는 뜻을 경문협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문협측은 “과거와 같이 남북교류를 일방적인 대북지원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북측에서 남측 출판사들로서는 부담스러운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세계약 등 합리적인 저작권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측 또한 《림격정》에 대한 저작권료 보상을 계기로 저작권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사무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남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팔릴 만한’ 도서 목록을 경문협을 통해 제시했다. 또한 일본 도쿄에 ‘조선저작권 대리판매 센터’를 개설하는 등 해외 지적재산권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하다.

북한출판물 매력은 살아 있는 형상어, 탄탄한 서사, 쉬운 우리말 번역
북한의 출판물 중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로는 우선 고전문학의

번역서와 역사소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리출판사는 이미 1950~60년대 고전 문학작품을 현대말로 옮겨 펴낸 북한의 '조선 고전문학선집' 100권을 다시 '겨레고전문학선집'으로 출간하면서 남한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북한과의 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긴했지만 북측에서 보유한 양질의 콘텐츠와 남한이 보유한 출판기술이 만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산대사》를 출간할 계획인 자음과모음의 이성림 국장은 "출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서산대사와 당시 조선을 바라본 시각이 흥미로울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작품을 소개하려는 의도보다는 인물 자체에 대해 고민이 앞섰다"며 "국내에는 서산대사를 다룬 작가가 없어 북한 작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북한 작품 중에 역사인물을 다룬 소설을 지속적으로 출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전문가들은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된 후 동독 작가 작품이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형상어가 살아있고 서사가 발달된 북한의 문학은 정치적인 색채만 없다면 오히려 개인의 내면에 빠져 있는 남한 작가들의 작품보다 더 호소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 이외에도 역시 스토리와 묘사가 탄탄한 동화, 한자어 사용을 최소화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한 학술서, 고려의 학, 각종 사진, 국어학 관련 저작, 우리에게 비해 연구가 활발한 제3세계 사회문화 등도 관심을 가져볼 콘텐츠로 꼽히고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의 전자도서관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특히 북한의 저작들은 한자를 풀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조왕조실록》과 같이 남한에서는 전문가들이나 접근할 수 있는 문헌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북한출판문화에 대한 무지, 보안법 등 걸림돌... 정부차원 대화창구 필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남북출판문화 교류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알고 이해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최진이》를 출간한 조선작가동맹 출신 탈북시인 최진이 씨는 "막상 남한에 와보니 남한사람들이 북한사회를 너무 모르고 있었다. 이처럼 무지한 상태에서 출판문화 교류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전영선 박사는 "이제야 북한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총론에서 각론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라며 "현재 남한에서 북한의 사회·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는 전체 연구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소수 연구자들조차 정치(사회)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북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서적의 반입에 어려

움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북한 유일의 문예지 <조선문학>이나 대중지 <천리마> 등과 같은 저작물은 여전히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특수자료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들여와 무단으로 일반에 배포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에 해당한다. 결국 이는 진정한 의미의 출판문화교류를 막고, 북한의 일면만을 소개해 오히려 북한에 대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범출판계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실제적인 교류에 있어서도 보다 제도화된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경문협이 활동으로 그동안 남북간의 저작권 다툼의 소지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문협은 북한의 저작권사무국과 같이 출판, 음악, 영상, 사진 등 저작권 전반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단체가 아니다. 한 출판인은 "경문협은 현재 북한 저작권관리국으로부터 일부 도서와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남측의 대북 저작권 사무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취약점이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포괄적인 저작권 관리기구를 만들어 북한 저작권관리국과의 공식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북한과의 저작권교류 실무를 맡고 있는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박윤주 씨는 "당국 차원에서의 채널과 창구가 있어야 한다는 데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이미 남과 북이 합의했고 조만간에 가동하게 될 사회문화협력 분과회의라는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저작권 교류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우출판문화재단 이두영 이사는 2004년 12월 제1회 <통일지향적 남북출판정책개발>이라는 세미나에서 "남북한 출판교류협력의 목적은 두 진영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공동 영역 확대와 새로운 출판시장 확장에 있다"고 강조한 후 이를 위해선 ▲ 상호이해 증진과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 ▲ 제도 및 기구 정비를 통한 남북교류의 활성화·제도화 ▲ 공존·번영의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남북출판공동사업 ▲ 국제적인 출판교류 활동의 남북협력 증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취재_ 신동섭 기자, 김청연 기자

